

## 인도네시아 플랫폼 오토바이 택시 기사 이야기 ①

# 밤새 일하는 오토바이 택시, 날롱

샤리프 아리핀 Lembaga Informasi Perburuhan Sedane

\*샤리프 아리핀 활동가의 플랫폼 오토바이 택시 기사에 관한 글을 세 달에 걸쳐 내보냅니다.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세랑 반텐(Serang Banten)의 오토바이 택시 기사 트리오노가 승객을 내려주던 중 픽업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트리오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플랫폼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승객이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면 목적지까지 승객을 태워주는데, 기사들은 여러 플랫폼 기업에 등록하고 일을 할 수 있다. 트리오노는 세 개의 온라인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300만 루피아(한화 256,800원)의 유족 위로금을 지급했고, 다른 하나는 꽃다발을 보내줬고, 다른 하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국영 보험사인 자사 라하르자(Jasa Raharja)는 트리오노의 오토바이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가 죽기 한 달 전, 나는 트리오노를 만났다. 그가 착용한 헬멧과 재킷에는 온라인 운송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칙칙한 얼굴에 잠이 덜 깬 눈을 한 트리오노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라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광고판처럼 보였다. 날렵하고 멋진 모습으로 미래를 확신에 차서 바라보는 고센드 브랜드 홍보대사 노아 밴드의 보컬 아리엘, 고푸드 브랜드 홍보대사 방탄소년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sup>1)</sup>

지난 4년 동안 트리오노는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자신의 오졸(ojol, 오토바이 택시 기사) 계정을 활성화하는 일명 날롱(Ngalong)을 하고 있었다. 날롱은 박쥐를 뜻하는

1) Gojek은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반형 멀티 서비스 플랫폼 및 디지털 결제 기술 그룹이다. Gojek은 물건이나 서류를 배송하는 Go Send, 음식을 배달하는 Go Foo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지어 칼롱(Kalong)에서 유래한 말이다. 날롱은 야간에 영업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다.

## 날롱 괴담, 가짜 주문부터 살해까지

현재 약 500만 대의 오토바이 택시가 운행 중이다. 예전에도 날롱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았지만, 2020년에 보너스 및 인센티브 정책이 중단된 이후에는 5명 중 1명 정도가 날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날롱을 선택

하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아주 많다. 강도당한 일,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경험, 불규칙한 휴식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허위 주문, 심지어는 살해당한 이야기까지 펼쳐진다(Rianur, 2024.2.2).

운전자들에 따르면 날롱은 특히 온라인 운송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현재 고젝(Gojek), 그랩(Grab), 맥심(Maxim), 인드라이브(inDrive) 등 4 개의 온라인 운송 플랫폼이 있다. 낮보다 밤에 오졸 드라이버는 더 적고, 오졸 사용자는 많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날롱을 선택하는 것이다.

운전자 간의 경쟁은 온라인 운송 비즈니스의 특징 중 하나다. 플랫폼은 평가 메커니즘, 고객 평가, 단가 지불 시스템을 통해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유지한다. 이런 경쟁은 택시 운전기사들을 분열시킨다. 운전기사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간의 경쟁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플랫폼 내부 경쟁 시스템으로도 나뉜다. 지역마다 다른 요금 정책을 시행하는 식으로 주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도 분리된다. 도심의 요금은 외곽의 요금보다 높다. **알티**



▲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 사진 : 샤리프 아리핀